

# | 해양논단 |



윤원용 소장 '귀선도'

# 이순신의 수군 해상기지 안편도 위치 추정

| 고광섭 · 김득봉 · 박태용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차 례〉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3. 난중일기의 기록 검토
4. 안편도로 추정되는 팔금도와 장산도 분석 결과
5. 맺는말

## 1. 연구배경

명량해전 이후 새로운 진을 찾아 서남해안을 향해하면서 들린 여러 섬 중 안편도는 목포의 고향도로 상륙하기 직전의 조선수군 임시 진이 있던 곳이다. 1597년 10월 11일 이순신의 일기에 기록된 섬인 안편도가 현재 어느 섬인지와 당시에 전선을 숨기기 위해 지형지물을 탐색했던 산이 어느 산인지에 대해 역사학자, 이순신 연구 전문가 또는 향토 사학자들 간에 이은상이 난중일기를 번역하면서 안편도(발음도)를 현재의 팔금도 일 것으로 추정한 이래 안편도가 팔금도가 맞다는 측과 장산도가 맞다는 측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참고문헌 1-9].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주장은 사실을 밝혀 줄 역사적 자료가 없다

는 이유가 크지만, 추정하는 논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간과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탓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이 기록한 지형지물의 방향을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방향이 뚜렷한 지형지물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추정하거나 확신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안편도로 추정되어 온 신안군 팔금도와 장산도에 대한 항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난중일기 기록과 실제 지형지물의 방향에 대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방법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기록한 내용 즉, 방향과 위치가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지도상에서 안편도로 추정되는 섬들의 산 과 난중일기에 기록된 장소와의 방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또 현지답사에는 복수의 항해사 출신 교수들이 참여하였으며, 나침반, 스마트폰 웹 방위측정기 및 자체 제작한 방위측정 보조기를 사용하였다.

## 3. 난중일기 기록 검토

이순신의 일기 원문에 1597년(정유년) 10월 11일 전선을 숨길만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이순이 그의 참모들과 소정의 임무를 마치고 일기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97년 10월 11일 난중일기와 안편도 산 정상에서의 조망 특성

이순신의 일기 원문에 1597년(정유년) 10월 11일 일기에 기록된 내용은  
“十一日 戊辰 晴 午到 安便島(發音) 風利日和 下陸上 上峯審見船藏處  
東有 前島 不能遠望 北通羅州靈巖 月出山 西通飛禽島 眼界通 ”[10]

(11일) 정오에 안편도에 도착했다. 바람이 자고 날씨가 온화하다. 배에서 내려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전선(戰船)을 숨겨둘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동쪽으로는 앞에 섬이 있어 멀리 바라볼 수 없었고, 북쪽으로는 나주와 영암의 월출산이 트이고, 서쪽으로는 비금도로 통한다. ”이윽고 중군장과 우치적이 올라오고 조효남, 안위 우수가 잇달아 올라 왔고, 날이 저물어 산에서 내려왔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영에서 안편도에 상륙하여 이순신이 산 위로 올라가 주변을 조망한 목적은 전선을 숨겨둘만한 정박지를 찾는 일이었다. 날이 저물어야 산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순신은 그의 참모들과 함께 정박지 찾는 일은 물론 향후 조선수군의 관리와 전략에 대하여도 충분히 논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순신 스스로가 유능한 해상 전투지휘관 일 뿐 아니라 그의 측근 참모들 역시 해상 전투경험이 많은 수군 장수들임을 감안할 때 그의 일기에 기록한 지형지물의 명칭이나 지명에 대한 방향이 틀렸을 리 없다.

## 4. 안편도로 추정되는 팔금도와 장산도 분석 결과

### 4.1 팔금도에 대한 분석 결과

지도 및 해도를 이용하여 팔금도의 주요 산인 채일봉과 금당산의 산 정상위치와 난중일기에 기록된 육상물표와 지형에 대한 상대방향을 측정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였고, 맑은 날을 택하여 2개의 산을 답사하여 방위측정 기구를 이용하여 난중일기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과 현장답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팔금도(채일봉과 금당산)의 산 정상에서의 서쪽, 북쪽 및 동쪽 방향의 지형지물과의 일치 여부를 <표 1>에 요약하였다.

<표 1> 팔금도 채일봉과 금당산 현장답사 결과

방향	난중일기 기록	일치 여부
동쪽	앞의 섬에 가려져 멀리 볼 수 없음	불일치(앞에 시야 가리는 섬 없음)
북쪽	나주, 월출산이 보임	나주:일치 월출산: 불일치 (월출산은 동남쪽에 위치 함)
서쪽	비금도가 흰히 보임	일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금도를 안편도라고 할 때 난중일기에 기록된 안편도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의 주장이나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 오류는 첫째로 실제로 동쪽에 시야를 막을만한 섬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멀리까지 흰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둘째로 팔금도 산 정상에서 북쪽 방향에 위치하고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월출산은 동남쪽 방향에 위치한다.

## 4.2. 장산도에 대한 분석 결과

장산도에는 대성산(약 200m), 아미산(137m), 오음산(209m) 등의 산이 있다. 이러한 섬 주위의 많은 부분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밀물과 썰물이 존재했던 바다였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섬 북쪽부터 남쪽으로 오음산, 아미산, 대성산 순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들 산 정상에서 보면 서쪽으로는 비금도를 볼 수 있고, 동쪽과 동북쪽이 탁 트여 바다 건너 화원반도와 나주(당시 나주목 구역) 및 월출산 조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산에서 동쪽으로 이들 산 보다 높은 산이 존재하지 않고, 동쪽으로 시야를 막는 어떤 지형지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 2〉 장산도 대성산, 아미산 및 오음산 현장답사 결과

방향	난중일기 기록	일치 여부
동쪽	앞의 섬에 가려져 멀리 볼 수 없음	불일치(앞에 시야 가리는 섬 없음)
북쪽	나주, 월출산이 보임	일치(동북쪽에 위치함)
서쪽	비금도가 훤히 보임	일치

〈표 2〉에 현장방문을 하여 방향측정기와 태양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장산도의 대표적인 세 개의 산 위에서 보았을 때 모두 서쪽으로 비금도가 조망 가능하고, 동북쪽으로 나주 및 월출산 조망 가능하지만, 동쪽으로는 바다 건너 까지 앞이 시원하게 펼쳐 있어,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기록한 “동쪽으로는 앞에 섬이 있어 멀리 바라볼 수 없었고” 라고 기록한 가장 중요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맺는말

본 연구는 반세기 이상을 난중일기에 기록된 안편도로 추정되어 온 전남 신안군 팔금도와 장산도가 난중일기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로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한 연구로서 지리 및 항해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안편도로 추정되고 있는 두 개의 섬 팔금도와 장산도 모두 난중일기의 내용과 일부 일치하지만, 두 섬 모두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동쪽 방향에 시야를 막을만한 섬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저자들의 추가적인 연구 결과 안편도는 신안군 팔금도와 장산도 사이에 위치한 안좌도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추후 별도의 기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이순신(1968), 이은상 역, 『난중일기』, 현암사.
- 조성도(1986), 『충무공 이순신』, 남영문화사, pp. 128.
- 장학근(2002), 『충무공 이순신의 짧은 생애』, 빛나는 삶, 한국해양연구소, pp.149-151.
- 이민웅(2004), 『임진왜란 해전사』(7년 전쟁, 바다에서 거둔 승리의 기록), 청어람미디어, pp. 235.
- 김진오(2004),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 속 발음도는 장산도』, 신안문화 14호
- 최영섭(2007), 『민족성지 고하도』, 도서출판 훈, pp.352.
- 이순신, 노승석 옮김(2014),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pp. 290.
- 노기욱(2017), 『이순신의 나도 해상 진출과 신안 팔금 해상기지 구축』, 신안군 팔금면 이순신 장군 해상기지 재조명 학술세미나, pp.76-78.
- 안영배(2018), 『정유재란: 잊혀진 전쟁』, 동아일보사, pp. 162.
- 이순신(1597), 『정유일기』, 1597,10월 11일 일기